# FIFA U-20 월드컵… 한국축구 새역사 쓸까

### 12일 에콰도르와 4강전… 사상 첫 결승 기대 FIFA 주관 남자축구 역대 최고 성적도 예약

36년 만에 4강 신화를 재현하는 데 성공한 한국축구의 미래들이 기세를 몰아 새역사에 도전한다.

오전 3시 30분(이하 한국시간) 폴란 드 루블린의 루블린 경기장에서 에 콰도르와 2019 국제축구연맹(FIFA 두 4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 U-20 월드컵 4강전을 벌인다.

대표팀은 9일 아프리카 강호 세네 갈과의 8강전에서 연장까지 120분간 의 혈투도 모자라 승부차기까지 가 는 명승부 끝에 4강 진출을 이뤘다. 이날 승리로 우리나라의 이 대회 역

대 최고 성적인 1983년 멕시코 대회 의 4강 신화를 36년 만에 다시 썼다.

아울러 멕시코 U-20 월드컵과 2002 정정용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20 한·일 월드컵에 이어 FIFA가 주관하 세 이하(U-20) 축구대표팀은 12일 는 남자축구 국가대항전에서는 통산 세 번째로 4강 진출의 쾌거를 이뤘다. 앞선 두 번의 4강 진출 대회에서는 모

> FIFA가 주관하는 클럽대항전에서 는 2009년 세르지오 파리아스 감독 이 지휘봉을 잡았던 포항 스틸러스 가 FIFA 클럽월드컵에서 3위를 차 지한 것이 우리나라의 역대 최고 성 적이다.

올림픽에서도 2012 런던 대회에서 일본을 꺾고 동메달을 차지한 바 있다.

한국축구가 FIFA 주관대회에서 우승한 적도 있다. 여자가 먼저 세계 정상을 밟았다.

2010년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 열 린 FIFA 17세 이하(U-17) 여자월 드컵에서 우리나라가 맞수 일본을 결승에서 꺾고 월드 챔피언이 됐다.

FIFA가 주관한 월드컵에서 한국이 우승컵을 들어 올린 것은 남녀를 통틀 어 처음이었고, 아직도 유일하다. 이에 앞서 같은 해 독일에서 열린

FIFA U-20 여자월드컵에서 3위를 차지해 역대최고 성적을 냈으나 이 후 17세 이하 동생들이 바로 다시 새

이제 정정용호가 에콰도르를 넘어

서 사상 처음 결승에 오르면 이 대회 뿐만 아니라 FIFA가 주관하는 남자 축구대회에서는 한국축구의 역대 최 고 성적을 예약한다.

아시아 축구사를 새로 쓸 기회도

지금까지 FIFA U-20 월드컵에서 결승에 오른 아시아국가는 카타르와 일본뿐이다.

제3회 대회였던 1981년 호주대회 에서 카타르가 처음 결승에 올랐고, 1999년 나이지리아 대회에서 일본이 결승 그라운드를 밟았다.

하지만 아직 이 대회에서 우승한 아시아국가는 없다.

카타르와 일본은 결승에서 당시 서독과 스페인에 각각 0-4로 무릎을 꿇었다.

# 제주휠체어농구단 우정사업본부장배 준우승 서울에 56-67 석패… 장애인체전·KWBL 대비 필요

제주특별자치도휠체어농구단(단장 부형종, 이하 제주)이 제18회 우정 사업본부장배 전국휠체어농구대회에 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최근 제주도지사배에서 설욕전에 성공해 우승을 차지했던 제주는 10일 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숙적 서울시청을 맞 아 선전했지만 56-67로 아쉽게 패했 다. 지난 7일 예선 풀리그에서도 서울 에 55-65로 지면서 2패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제주로서는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39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와 2019 KWBL 휠체어농 구대회에 대한 전술 및 전략 보강이 과제로 남았다.

제주는 이날 1~2쿼터에서 결승에 대한 부담감으로 슛 난조와 실책이 빈발하며 한때 8점 차까지 허용, 어

렵게 경기를 이어갔다. 하지만 2쿼터 막판 김동현의 슛과 김호용의 3점슛 이 살아나면서 28-30, 2점차로 좁히 며 전반을 마쳤다.

승부는 3쿼터에서 갈렸다. 제주는 서울의 강력한 압박 수비와 상대 조 승현과 이윤주에게 3점슛을 허용하 면서 40-51로 패색이 드리웠다. 이 어 4쿼터에서 역전에 나섰지만 16점 씩을 주고받으면서 11점 차로 졌다. 황우성과 김호용이 외곽슛을 성공시 키며 추격에 나섰지만 주포 김동현 의 슛 난조가 아쉬웠다.

베스트5에 김동현과 김호용이 이 름을 올렸다.

2017년 이 대회에서 우승했던 제 주는 지난해 3위와 올해 준우승의 성적으로 다른 대회에 견줘 기록이 다소 부진하다. 백금탁기자

# 제주수퍼맨전국철인3종 16일 '스타트' 제주시 구좌읍~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170km 구간

대한민국 철인들이 푸른 제주바다를 ▷사이클은 제주오션파크~시흥리 배경으로 인간한계에 도전한다.

제주도철인3종협회(회장 조남식) 는 오는 16일 제주시 구좌읍과 서귀 포시 성산읍 일원에서 '제16회 제주 수퍼맨전국철인3종 경기대회'를 개 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도체육회, 대 한철인3종협회, 제주개발공사, 제주 오션파크 등이 후원한다. 경기는 수 노익장을 과시할 예정이다. 영 3km, 사이클 140km, 달리기 30km 등 총 3개 종목 173km 구간에서 펼 쳐지며 휴식 없이 13시간 내에 완주 해야 하는 극한 코스다.

구간별로 ▷수영은 성산읍 시흥리 제주오션파크(인공섬) 앞바다에서

해녀식당~세화리 해녀민박 앞~시 흥리 해녀식당 구간에서 ▷달리기는 구좌읍 하도리와 성산읍 시흥리 해 안도로에서 각각 진행된다.

대회에는 선수 200여명을 비롯해 자치경찰, 자원봉사자, 동호인, 선수 제주철인3종협회가 주최·주관하고 가족 등 400여명이 참석한다. 특히 윤휘웅(83), 이희봉(72), 이희찬 (72)씨 등 최고령자 3명이 참가해

이 대회는 우리나라 장거리 철인3 종 동호인들의 데뷔 무대로 유명하 다. 개회식은 경기 시작 전날인 15일 오후 6시 제주오션파크 특설무대에 서 마련된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결승 골을 앞세워 1-0으로 승리를 따낸 대표팀은 오늘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최근 5차례 맞대결에서 1무 4패를 기록하며 한 번도 승리를 따내지 못했던 '난적'이란과 평가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 남녕고, 마사회 제주본부장기 남녀 동반우승 남중 서귀포중·여중 애월중·초등부 동남초A 석권

남녕고가 지난 9일 제주유도회관에서 열린 제25회 한국마사회 제주본부장 기 전도유도대회 남녀단체전에서 동반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서귀포중이 남 중부, 애월중이 여중부, 동남초A가 초 등부 우승기를 각각 휘날렸다.

이 대회는 렛츠런파크 제주가 주최 하고 제주도유도회가 주관했다. 대회 에는 도내 유·초·중·고 선수와 가족, 지도자 등 모두 400여명이 참가했다. 특히 대회에는 올림픽 금메달리스

18:00 6시 내고향

19:00 7 오늘 제주

20:30 여름아 부탁해

21:00 KBS 뉴스 9

22:55 오늘밤 김제동

23:40 거리의 만찬(재)

22:00 싱가포르 회담 1주년

시사기획 창

19:40 보물섬

23:35 숨터

18:00 KBS 경제타임

18:30 2TV 생생정보

22:00 퍼퓸

22:35 퍼퓸

19:50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23:10 회사 가기 싫어 2019

트인 이경근 감독과 김재범 코치의 팬 사인회도 마련되며 행사의 풍미 를 더했다.

다음은 선수부 우승자 명단.

▶남고부 ▷+100kg급 이강석(함 덕고) ▷-100kg급 문세현(남녕고) ▷-90kg급 정민국(남녕고) ▷-81kg 급 정세훈(남녕고) ▷-73kg급 이건 (남녕고) ▷-66kg급 박유빈(남녕 고) ▷-60kg급 양지혁(남녕고) ▷-55kg급 문석준(남녕고)

▶여고부 ▷+78kg급 신은별(대정 여고) ▷-70kg급 김민정(남녕고) ▷ -57kg급 이본(남녕고) ▷-52kg급 좌시안(함덕고) ▷-48kg급 김민주 (제주중앙고)

▶남중부 ▷+90kg급 지은석(안덕 중) ▷-90kg급 성종혁(제주중앙중) ▷-81kg급 박현빈(제주제일중) ▷-73 kg급 김진우(애월중) ▷-66kg급 김건 휘(한라중) ▷-60kg급 김세진(애월 중) ▷-55kg급 문지혁(제주중앙중) ▷-51kg급 오상우(제주사대부중) ▷-48kg급 양준서(제주제일중) ▷-45kg 급 김수범(제주사대부중)

▶여중부 ▷+70kg급 김아리(위미

KCTV

9:30 김민아의 무비 N시리즈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7:00 KCTV 뉴스

9:00 KCTV 뉴스

13:00 문화카페

14:00 KCTV 뉴스

15:00 챌린지 퀴즈챔프 17:40 KCTV 시청자세상

19:00 KCTV 뉴스7

8:30 문화카페

18:00 영재발굴단(재)

20:00 SBS 8 뉴스

20:35 JIBS 8 뉴스

20:55 본격연예 한밤 1부

21:30 본격연예 한밤 2부

22:00 초면에 사랑합니다

22:40 초면에 사랑합니다

23:10 불타는 청춘 1부

23:50 불타는 청춘 2부

19:00 세 남자의 뻔뻔한 쿡방

중) ▷-70kg급 부유림(애월중) ▷-63kg급 김은경(성산중) ▷-57kg급 김예림(위미중) ▷-52kg급 정혜원 (신산중) ▷-45kg급 문지수(성산 중) ▷-42kg급 이사랑(성산중)

▶남초부 ▷+66kg급 신주혁(광령 초) ▷-66kg급 박유준(제주북초) ▷ -60kg급 홍승운(동남초) ▷-54kg급 최우빈(납읍초) ▷-48kg급 고은찬 (동남초) ▷-42kg급 김동훈(납읍 초) ▷-36kg급 양현서(한라초)

▶여초부 ▷-52kg급 강나은(서귀 포초) ▷-44kg급 신유미(보목초) ▷ -40kg급 문지현(동남초) ▷-36kg급 강여원(동남초). 백금탁기자

#### 제주출신 강성훈·임성재 남자골프 세계 랭킹 62.63위

강성훈(32)과 임성재(21)가 남자골프 세계랭킹 62위와 63위를 기록했다.

10일 발표된 남자골프 세계랭킹에 따르면 강성훈은 지난주보다 한 계 단 내려선 62위, 임성재는 5계단이 오른 63위가 됐다.

이날 발표된 세계랭킹에서 60위 이내에 들었다면 13일 개막하는 시 즌 세 번째 메이저 대회인 US오픈 에 나갈 수 있었으나 둘은 아쉽게 다 음을 기약하게 됐다.

올해 US오픈은 5월 20일 기준 세 계랭킹 60위 이내와 6월 10일 기준 60위 이내 선수들에게 출전 자격을 부여한다.

강성훈은 5월 20일 자 순위 61위, 이날은 62위에 머물러 간발의 차로 US오픈 출전권을 놓쳤다.

10일 끝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캐나다오픈에서 단독 7위로 선 전한 임성재는 5월 20일 순위에서는 68위였다. 연합뉴스

김종상 지단(知旦)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모닝와이드 1부 6:00 KBS 뉴스광장 6: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7:30 뽀롱뽀롱 뽀로로 8:00 딩동댕 유치원 1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50 인간극장 8:00 KBS 아침 뉴스타임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20 JIBS 아침 뉴스 9:30 원더볼즈 8:25 아침마당 9:00 여름아 부탁해(재) 7:50 용왕님 보우하사(재) 7:35 모닝와이드 3부 10:50 최고의 요리비결 9:30 KBS 뉴스 9:40 그녀들의 여유만만 8:30 TV전국시대 8:35 수상한 장모 12:00 EBS 정오뉴스 10:40 지구촌 뉴스 9:30 930 MBC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9:10 좋은아침 12:10 미래교육 플러스 11: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11:00 퍼퓸(재) 9:45 기분 좋은 날 14:30 꼬마버스 타요 10:10 SBS 뉴스 11:50 한식의 마음 10:45 2019 메이저리그 10:30 살맛 나는 오늘 15:00 <del>출동</del>! 파자마 삼총사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7:30 페파 피그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9:30 생방송 판다다 20:30 아기 동물 귀여워 21:50 EBS 다큐프라임 13:55 2시 뉴스 외전 12:10 생생정보 스페셜 12:00 SBS 12뉴스 12:00 KBS 뉴스12 제주 CBS FM 93.3Mbz 12:55 살림하는 남자들(재) 15:25 에어로버 12: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13:00 KBS 네트워크 특선 7:00 임미현의 아침뉴스 14:00 KBS 뉴스타임 15:55 뽀뽀뽀 모두야 놀자 12:40 JIBS 뉴스 거북이 늬우스 7:30 김현정의 뉴스쇼 14:10 생활의 발견(재) 16:55 실화탐사대 스페셜 12:50 접속! 무비월드 (재) 13:50 우리말 겨루기(재) 9:05 그대창가에 이한철입니디 15:00 자동공부책상 위키2 17:55 웃음주식회사 속암수다 14:00 뉴스브리핑 14:45 팔도밥상 스페셜 12:00 CBS낮종합뉴스 15:30 TV 유치원 16:00 불타는 청춘(재) 14:55 세계는 지금 스페셜 12:05 찬양이 있는 숲길 17:00 SBS 오뉴스 16: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15:00 가요무대(재) 13:30 생명의 샘 17:00 다큐멘터리 3일(재) 17:45 JIBS 뉴스 16:00 사사건건 15:00 CBS 뉴스 17:00 KBS 뉴스5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7:30 동물의 왕국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7:55 나의 독립 영웅 18:15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1:35 라디오강단 22:05 서연미의 가스펠 아워

20:10 챌린지 퀴즈챔프 21:30 KCTV 종합뉴스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プラン**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b 서귀포시 FM 105.9Mb ♥ KBS ☎ 064)740-7331 / ♥ MBC ☎ 064)740-2432 / ♥ JIBS ☎ 064)740-7800 / ♥ KCTV ☎ 064)741-7723 / ♥ 제주CBS ☎ 064) 748-7400

18:50 용왕님 보우하사

19:30 MBC 뉴스데스크

20:55 검법남녀 시즌2

21:30 검법남녀 시즌2

23:05 PD수첩

22:05 다큐에세이 그 사람

#### 오늘의 운세 11일



36년 사소한 다툼이나 논쟁이 생기니 조심. 48년 동 료나 동업자, 거래처의 일이 원활하지 못하다. 각별 한 주의 요망. 60년 사소한 시비가 구설수가 되니 음 주나 차량운전은 삼가고 조기귀가가 좋다. 72년 달 콤함이 있는 말에 현혹하기 쉬운 날. 장미꽃에 가시 가 있다. 84년 애인에게 히든카드를 보이지 마라.



37년 낙상이나 넘어져 다칠수 있으니 조심. 49년 재 물손실이 있으니 자금관리 철저, 경쟁업체 등장. 61 년 사업이나 진로개발등 재물에 대한 생각이 많아 진다. 73년 약속이 중첩되거나 시간이 같은 경우가 생기니 선약에 충실하라. 85년 기초가 튼튼해야 하 니 매사를 꾸준하게 다져 나가는 습관이 필요.



38년 든든한 내 자식의 자랑도 남이 해야 더욱 빛난 다. 50년 치밀하고 꼼꼼하며 정확함이 돋보인다. 62 년 기쁜 일에 참여하면 자녀나 지갑을 잘 챙길 것. 마음고생이 있는 날. 74년 차량으로 인하여 고생을 하니 운전조심. 86년 소개 또는 중매가 들어와도 반 갑지 않다. 배반 또는 배신수가 있으니 조심.



39년 친인척의 불미스러운 일이나 걱정스런 소식을 접한다. 51년 웃어른 일로 자금이 지출되거나 손재수 가 있다. 63년 사업이 호전되고 직장인은 명예, 승진. 75년 남의 말에 현혹되거나 너무 들뜨면 구설에 시달 리니 마음을 편하게 하라. 87년 이성교제나 모임이 주선되고 기쁨도 있다. 귀가는 가능한 늦지 않게.



40년 이웃과 나눔을 갖거나 먹을 복이 있다. 52년 경 력과 노하우로 사업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재산을 증가시킨다. 64년 부부간에 다툼이 커지니 즉시 화 해할 것. 76년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고 시기자가 생겼다가도 없어진다. 88년 대담하게 행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외출이 기다리고 있다.



41년 마음과 몸이 피곤하고 무거워도 주어진 일에 전 념하는 것이 상책. 53년 명예 또는 이익이 있다. 아랫 사람과 대화도 필요하다. 65년 배신 또는 금전적 손 해가 따르니 주의요망. 77년 집안에 걱정이나 근심이 있고 연락이 올 수 있으니 먼저 연락을 취하라. 89년 약속이 늘어나고 계획이 많으나 차질이 생긴다.



42년 갈곳이 많고 재물지출이 많다. 필요한 돈만 지참할 것. 54년 주변에 나를 알리려면 대인관계를 지 속하라. 66년 솔직하고 화끈함을 좋아해도 상대비판 은 나에게 치명타가 되니 비판하지 마라. 78년 집안 에 윗사람 일로 걱정이 생기니 안부전화를 해드리면



43년 사사로운 감정이 있다면 풀어라. 골이 깊어지고 다시 보기 어렵다. 55년 직장에서의 기쁜 일이 있거 나, 관급계약이 있다. 67년 이성교제나 새로운 이성문 제 또는 사회활동에 참여하려고 갈등. 79년 동료, 친 구와 협력하면 좋은 대책이 있고 아이디어가 새롭다. 91년 의욕이 증가하여 무슨 일이든 하고 싶어한다.

좋다. 90년 친구나 이웃과 모임이 생기면 참석하라.



44년 좋은 일속에 흉이 도사리니 밀어붙이는 것은 자중해야 한다. 56년 명예나 인간관계 처세술이 뛰 어나고 하는 일이 좋아진다. 68년 아이디어로 승부 하거나 기획력에 인정받는다. 80년 시험, 공부는 좋 으나 직장인은 갈등 고민. 92년 관청에 할 일이 있어 외출을 하거나 친구의 소식을 접한다.



45년 사회생활은 좋으나 가정적 근심수가 오니 귀가 는 늦지마라. 57년 집안에 근심이 오니 안부전화가 필요, 부부간 시댁, 처가문제로 논쟁한다. 69년 자녀 일로 고민하거나 상의할 일이 생긴다. 81년 가정불화, 애정관계 문제있으니 이해하고 배려 필요. 93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으니 투기는 중지하는 게 좋다.



46년 자녀에 혼담이 오가거나 상견례가 오갈 수 있 다. 58년 책임분야 능력을 인정받고 순조롭다. 다만 자녀로 인해 부모는 마음만 급하다. 70년 소개 또는 중매를 받아 바쁜 하루가 된다. 82년 호기심이 발동 하고 구매의욕이 커진다. 94년 의욕이 상승하나 계 획추진은 지연되는 모습으로 심사숙고 필요.



47년 자녀에게 편안함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동기부여도 때론 필요하다. 59년 자신 일보다 자녀로 인한 마음, 전전긍긍. 71년 멋을 내고 외출하려 한다. 이 성간에는 불협화음이 샐 길 소지가 크다. 83년 취업 등 직장내 업무로 바쁘고 분주하다. 95년 힘이 들어 도 내색하면 힘이 더 빠진다. 변동하는 것은 신중을.